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사무엘상 9:1-10

사무엘 선지자는 목회자로서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사무엘도, 엘리 제사장과 같이 아들들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는 빌미를 주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나이들어 자식을 잘 다스리지 못해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는 것을 보면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같은 전철을 밟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택하신 내용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 하더라” (삼상 9:1-2)**

베냐민지파는 열두 지파중에 가장 큰 아픔을 당한 지파였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전체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고, 겨우 도망친 남자 600명 외에 전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첫번째 왕을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뽑으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안에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여덟명의 형제들 중에 가장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와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삼하 6:21)**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울의 집에 어려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삼상 9:3-4)**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은 재산의 손실이 났음을 의미합니다. 즉, 이것은 사울의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이 과정의 첫 시작이 바로 이 어려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나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울의 사환에게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가까운 곳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어찌해야 할지 물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삼상 9:6)**

만약 암나귀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결국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된 연결고리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삼상 9:14)**

사무엘은 여러 곳을 다니며 말씀을 전했기에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황 속에서, 준비 시켜 놓으신 정확한 시간에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나 논리를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자신의 판단만을 고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얼마나 보잘 것 없는 존재인지,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만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울처럼 말입니다.

사울은 왕이 될만한 인간적인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한 것은 그가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삼상 10:16)**

그의 숙부는 암나귀를 찾지 못하고 돌아오는 사울에게 사무엘이 무어라고 하던지, 묻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 자신이 왕으로 세워질 것이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에 관련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암나귀만을 찾았다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왕으로 지목된 사실을, 사울은 왜 숨겼던 것일까요?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자신이 왕으로 지목된 사실을 숨기지 못하고 이곳저곳에서 떠벌리고 다녔을 것입니다.

사울은 겸손하게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그 겸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겸손은 사무엘도 언급을 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삼상 15:17)**

하지만, 그가 교만하게 되자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망하게 됩니다. 그에게 허락하신 모든 복을 걷어가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삼상 15:19)**

사울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 급급한 모습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이 부분은 대단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신의 위치가 낮을 때는 누구든지 겸손합니다. 하지만, 직책이 높아지고 권한이 주어지면 자연적으로 그 겸손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그 교만의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완성되고, 갖추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아주 작은 가능성을 믿고 맡겨 주시는 것입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목이 곧은 백성’ 이라고 질책하셨습니다.

사울은 인간적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훈련과 연단을 통해 잘 다듬어지지 않았기에, 곧 그 겸손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난 이후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다시 겸손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직분과 상관없이 겸손함을 잃지 않기 위해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귀한 직분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하자, 남김없이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가십니다.

사울의 모습을 기억하고, 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십시오. 우리는 낮아지고, 하나님만은 높여야 합니다. 그 겸손을 잃지 않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 나눔의 시간

1. 숙부는 사무엘을 만나고 돌아오는 사울에게 사무엘이 어떤 말을 했는지 물어봅니다. 그 때, 사울은 자신이 왕으로 지목된 말은 빼고 암나귀에 대한 말만 합니다. 만약 내가 사울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2. 인생을 살면서 겸손함으로 귀감이 되었던 분을 만났다면,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만났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도 함께 생각해 봅시다.